

- 무릇 민호(民戶)는 그 이웃과 더불어 모으되, 가족 숫자의 다과(多寡)와 재산의 빈부에 관계없이 다섯 집마다 한 통(統)을 만들고, 통 안에 한 사람을 골라서 통수(統帥)로 삼아 통 안의 일을 맡게 한다.
 - 1리(里) 마다 5통 이상에서 10통까지는 소리(小里)를 삼고, … 리(里) 안에서 또 이정(里正)을 임명한다.
- 비변사등록 -

< 보 기 >

- ㉠ 농민들의 도망과 이탈 방지
- ㉡ 부세와 군역의 안정적인 확보
- ㉢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 자치 활성화
- ㉣ 향권을 둘러싼 구향과 신향 간의 향전 억제

- ① ㉠, ㉡ ② ㉠, ㉢ ③ ㉡, ㉣ ④ ㉢, ㉣

답 ① / [근세의 정치] 제시된 자료는 조선 시대 지방 행정 구역의 하부 단위인 5가작통제에 대한 내용이다. 5가(家)를 1통(統)으로 편성하였고, 5개의 통을 묶어 1리(里)로 만들었다. 또한 5개의 리를 하나로 묶어 1면(面)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를 면리제라고 한다. 통에는 통수(統帥), 리에는 이정(里正), 면에는 면장(=풍헌, 권농)을 향촌 주민 중에서 선임하여 국가의 통치권이 향촌의 말단까지 미칠 수 있게 하였다. 국가는 이를 통해 인구의 파악과 농민들의 이탈 방지, 부세와 군역의 안정적인 확보, 범죄자 색출 등에 활용하였고, 후기에는 천주교인 색출에도 이용하였다. ㉢ 면리제와 5가작통제는 중앙 집권과 관련있는 제도이지, 지방 자치와는 관련이 없다. ㉣ 향전은 부·목·군·현에 설치된 향청(유향소)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므로 촌락의 편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4. 다음 발의로 개칭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베이징 방면의 인사는 분열을 통탄하며 통일을 촉진하는 단체를 출현시키고 상하이 일대의 인사는 이를 고려하여 개혁을 제창하고 있다. … 근본적 대해결로써 통일적 제조를 피하여 독립운동의 신국면을 타개하려고 함에는 다만 민의뿐이므로 이에 ㉠의 소집을 제창한다.

- ① 창조파와 개조파 등의 주장이 대립되었다.
- ② 한국국민당을 통한 정당정치 실시가 결정되었다.
- ③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이 채택되었다.
- ④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는 것이 논의되었다.

답 ① / [일제강점기] ㉠은 국민대표회의(1923)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의 노선 갈등이 일어나자 이를 여론에 의해 조정하기 위해 상하이에서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되었다. 그러나 이 모임에서도 임시정부의 조직만을 개조하지는 안창호 등의 개조파와, 완전 해체한 후 새 정부를 구성하자는 신채호 등의 창조파로 대립되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② 한국국민당은 1935년에 김구가 만든 임시정부의 산하정당으로, 국민대표회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임시정부는 1941년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을 채택하였는데, 국민대표회의와는 관련이 없다. ④ 김규식이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된 시기는 1919년이므로 국민대표회의 이전의 일이다.

5. (가)~(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나)	(다)	(라)	
연산군 즉위	중종 즉위	효종 즉위	영조 즉위	정조 즉위	

- ① (가) - 현량과를 실시하였다.
- ② (나) - 무오사화와 갑자사화가 일어났다.
- ③ (다) - 두 차례에 걸친 예송이 일어났다.
- ④ (라) - 신해통공으로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답 ③ / [근세~근대태동기의 정치] ① 현량과는 중종 때 조광조가 실시하였으므로 (나)에 해당한다. ②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일어났으므로 (가)에 해당한다. ③ 1차·2차 예송은 모두 현종 때 일어났고, 현종은 효종 다음의 국왕이므로 맞는 보기이다. ④ 신해통공으로 금난전권을 폐지한 것은 정조 때에 해당하므로 (라) 이후에 해당한다.

6. 다음 자료에 나타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며 춤을 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 또 호랑이를 신(神)으로 여겨 제사지낸다. 음력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는데, 이를 책화라 한다.

- ① 후·읍근·삼로 등이 하호를 통치하였다.
- ② 국읍마다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천군이 있었다.
- ③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한 다음 뼈만 추려 목곽에 안치하였다.
- ④ 아이가 출생하면 돌로 머리를 눌러 납작하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

답 ① / [선사시대와 국가의 형성] 제시된 자료는 동예에 대한 내용이고, ② 삼한, ③ 옥저, ④ 변한에 대한 설명이다.

7. 다음 건의문이 결의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힘을 합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3.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4.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5. 칙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의 자문을 받아 다수의 의견에 따를 것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 ①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되었다.
- ② 황제권 강화 작업의 일환으로 원수부가 설치되었다.
- ③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 ④ 서재필을 중심으로 민중 계몽을 위한 독립신문이 창간되었다.

답 ② / [근대사] 제시된 자료는 1898년에 발표된 헌의6조이다. ① 1894년의 갑오1차 개혁, ③ 1896년 아관

파천, ④ 1896년 독립신문 창간은 모두 현의6조를 결의하기 이전에 해당한다. ② 원수부는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1899년에 설치되었다. 원수부 설치 연도를 몰랐다 하더라도 광무개혁이 1897년~1904년까지 실시되었다는 것과 ①③④가 확실히 틀렸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게 출제되었다.

8. 밑줄 친 ‘이 기구’ 가 설치된 왕 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조정은 중국의 화약 제조 기술을 터득하여 이 기구를 두고, 대장군포를 비롯한 20여 종의 화기를 생산하였으며,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다.

- ① 복원궁을 건립하여 도교를 부흥시켰다.
- ② 흥덕사에서 직지심체요절을 간행하였다.
- ③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속장경을 간행하였다.
- ④ 시무 28조를 수용하여 유교정치를 구현하였다.

답 ② / [중세의 문화] 자료에서 ‘중국의 화약 제조 기술을 터득하여’를 통해 밑줄 친 ‘이 기구’가 우왕 3년(1377) 때 설치된 화통도감임을 파악할 수 있다. 당시 중국에서는 화약 제조법을 고려에게 비밀에 부쳐 전하지 않았으나, 최무선의 끈질긴 노력으로 화약 제조 비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이에 고려 조정은 최무선을 중심으로 화약과 화포를 전담하는 화통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20여 종의 화약 무기를 제작하도록 하였다. ① 복원궁은 우리나라 최초의 도관(도교 사원)으로 고려 예종 때 건립되었다. ② 우왕 3년(1377)에 해당한다. ③ 고려 선종 8년(1091)에 의천이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속장경을 간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작업은 숙종 6년(1101)에 의천이 사망할 때까지 이어졌다. ④ 고려 성종에 해당한다.

9. 갑신정변 이후 국내외 정세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일 부영사 부들러는 조선의 영세 중립국화를 건의하였다.
- ②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응하여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 ③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여 청나라 상인에게 통상 특혜를 허용하였다.
- ④ 청·일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텐진조약이 체결되었다.

답 ③ / [근대사] ③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은 1882년에 체결된 것으로 임오군란의 결과에 해당한다.

10.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로만 옳게 짝지어진 것은?

- ① 이범윤의 보고문 - 은주시청합기
- ② 대한제국 칙령 제41조 - 삼국접양지도
- ③ 미쓰야 협정 -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
- ④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 어윤중의 서북경략사 임명장

답 ② / [근대사] ① 이범윤은 간도에 파견된 관리이므로 독도와 관련이 없다. / 「은주시청합기」는 독도에 관한 일본 최초의 기록이다. ② 대한제국은 ‘칙령 제41조’에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고 독도를 관할하게 하였다. / ‘삼국접양지도’는 일본에서 그려진 지도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③ 미쓰야 협정은 만주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므로 독도와 관련이 없다. /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는 1905년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사실을 알린 고시(告示)이다. ④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는 1870년 일본 메이지 정부가 조사한 보고서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로 된 전말을 조사한 것

이다. 이 보고서는 결국 일본 스스로 독도가 조선 영토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 청과 국경 문제가 제기되자 조선은 1883년 어윤중을 서북 경략사로 파견하여 간도 문제를 협의하게 하였다. 그러나 토 문강을 청은 두만강으로, 조선은 송화강의 지류(상류)라고 주장하여 결렬되었다.

11. 다음에서 설명하는 화폐가 사용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초기에는 은 1근으로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 만들었는데 그 가치는 포목 100필에 해당하는 고액이었다. 주로 외국과의 교역에 사용되었으며 후에 은의 조달이 힘들어지고 동을 혼합한 위조가 성행하자, 크기를 축소한 소은병을 만들었다.

- ①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 ② 책, 차 등을 파는 관영상점을 두었다.
- ③ 동시전이 설치되어 시장을 감독하였다.
- ④ 청해진이 설치되어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답 ② / [중세의 경제] 자료에서 ‘은’,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 ‘소은병’ 등을 통해 고려 숙종 때 제작된 활구(은병)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조선 후기, ② 고려, ③ 신라 상대 지증왕, ④ 신라 하대 흥덕왕 때에 해당한다.

12. 밑줄 친 ‘그’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 왕조를 개창한 공으로 개국 1등 공신이 되었으며, 의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재상 중심의 관료 정치를 주창하였다. 그리고 「불씨잡변」을 저술하여 불교의 사회적 폐단을 비판하였다.

- ①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 ② 백성들의 윤리서인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다.
- ③ 여진족을 두만강 밖으로 몰아내고 6진을 개척하였다.
- ④ 「조선경국전」을 편찬하여 왕조의 통치 규범을 마련하였다.

답 ④ / [근세의 정치] 밑줄 친 ‘그’는 정도전을 가리킨다. ① 고려 창왕 때 박위, 조선 세종 때 이종무 등이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② 「삼강행실도」는 설순이 세종의 명으로 편찬하였다. ③ 세종 때 김종서가 6진을 개척하였다. ④ 정도전은 태조 때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등의 법전을 편찬하였다.

13. 밑줄 친 ‘이곳’ 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1903년에 우리나라 공식 이민단이 이곳에 도착하였다. 이주 노동자들은 사탕수수 농장, 개간 사업장, 철도 공사장 등에서 일하며 한인 사회를 형성하여 갔다. 노동 이민과 함께 사진 결혼에 의한 부녀자들의 이민도 이루어졌다. 또한 한인합성협회 등과 같은 한인 단체가 결성되었다.

- ① 독립운동 기지인 한흥동이 건설되었다.
- ② 독립운동 단체인 권업회가 조직되었다.
- ③ 자치 기관인 경학사와 부민단이 만들어졌다.

- ㉠ 헤이그 특사 파견을 문제 삼아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다.
- ㉡ 일본인 메가타를 재정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외교 고문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 ㉢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빼앗고 감옥 사무를 장악하였다.
- ㉣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대한제국의 관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답 ② / [일제 국권 피탈 과정] ㉡ 제1차 한·일 협약(1904) → ㉠ 고종 퇴위(1907) → ㉣ 한·일 신협약(1907, 정미7조약) → ㉢ 기유각서(1909) 순이다.

17. 다음의 자료에 보이는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해도 관찰사의 보고에 따르면, 수안군에는 본래 금광이 다섯 곳이 있었다. 올해 여름에 새로 39개소의 금혈을 뚫었는데, 550여 명의 광꾼들이 모여들었다. 도내의 무뢰배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다투어 모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 이익을 좇는 무리들도 소문을 듣고 몰려온다. ... 금점을 설치한 지 이미 여러 해가 된 곳에는 촌락이 준비하고 상인들이 물품을 유통시켜 큰 도회지를 이루고 있다.

- ① 밭농사에서는 견종법이 보급되었다.
- ② 면화, 담배 등 상품 작물을 재배하였다.
- ③ 일부 지방에서 도조법으로 지대를 납부하였다.
- ④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사패전을 부농층에 분급하였다.

답 ④ / [근대태동기의 경제] 자료에서 금광에 이익을 좇는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에서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기 ①②③번을 통해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이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④ 사패(賜牌)란 임금이 토지나 노비를 하사할 때 딸려 주던 문서로 토지나 노비의 소유 기한 등을 규정한 것이다. 사패를 딸려 하사한 토지를 사패전(賜牌田)이라 한다. 사패전에는 공을 세운 신하에게 준 '공신사패전'과 토지 개간을 목적으로 준 '개간사패전'이 있다. 전자는 공신전의 일종이고, 후자는 원 간섭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몽골과의 전쟁 과정에서 황폐해진 토지를 신속하게 개간할 목적으로 지급하였다.

18. 다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臣)들이 서경의 임원역 지세를 관찰하니, 이곳이 곧 음양가들이 말하는 매우 좋은 터입니다. 만약 궁궐을 지어서 거처하면 천하를 병합할 수 있고, 금나라가 폐백을 가지고 와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36국이 모두 신하가 될 것입니다.

- ① 서경 천도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 ② 문종 때 남경 설치의 배경이 되었다.
- ③ 하늘에 제사 지내는 초제의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
- ④ 공민왕과 우왕 때 한양 천도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답 ③ / [중세의 문화] 자료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서 내세운 풍수지리 사상이나, ③번은 도교에 관한 설명이다.

19.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급투쟁은 민족의 내부 분열을 초래할 것이며, 민족의 내쟁은 필연적으로 민족의 약화에 따르는 다른 민족으로부터의 수모를 초래할 것이다. 계급투쟁의 길은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필요는 없고, 민족 균등이 실현되는 날 그것은 자연 해소되는 문제다. ... 이 세계적 기운과 민족적 요청에서 민족사관은 출발하는 것이며, 민족사는 그 향로와 방법을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지시하여야 할 것이다.

- 조선민족사 개론 -

- ① 「조선상고사」와 「조선사연구초」를 저술하였다.
- ② 대동사상을 수용한 유교 구신론을 주장하였다.
- ③ 「진단학보」를 발간한 진단학회의 발기인으로 활동하였다.
- ④ 「5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동아일보에 연재하였다.

답 ③ / [일제 강점기] 자료의 출처인 「조선민족사 개론」을 통해 손진태임을 알 수 있다. 민중 중심의 민족학에 관심을 기울인 손진태는 신민족주의에 입각하여 민족의 단결과 자주 독립·평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병도 등 실증주의 사학자들이 조직한 진단학회에도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① 신채호, ② 박은식, ④ 정인보에 대한 설명이다.

20. 고려시대 의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천강변에 위치하며 도호부가 설치된 곳이다.
- ② 강동 6주 가운데 하나인 흥화진이 있던 곳이다.
- ③ 요(遼)와 물품을 거래하던 각장이 설치된 곳이다.
- ④ 요(遼)와 금(金)의 분쟁을 이용하여 회복하려고 시도한 곳이다.

답 ① / [중세의 정치] ① 의주는 청천강이 아니라 압록강변에 위치하며, 고려의 4도호부(또는 5도호부)가 설치되지도 않았다. 고려에서 4도호부(또는 5도호부)가 설치된 지역까지 학습할 필요는 없으며, 의주가 압록강에 위치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이다. ② 강동 6주의 위치를 지도로 떠올려본다면 의주(흥화진)가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각장(榷場)은 고려시대에 거란과 여진 등 북방 유목민족과의 교역을 위해 설치한 공식 무역장으로 의주에 설치되었다. ④ 993년에 서희가 소손녕과의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한 이후,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던 거란(요)은 1014년 의주를 점령하고 보주(保州)라 하였다. 이로부터 100년이 지난 1117년(예종 12) 고려는 요와 금의 분쟁을 이용하여 이곳을 되찾을 수 있었다.